

2008년 2월 4일 (월) 17:29 연합뉴스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심사결과 발표

대전시는 5일 금년도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심사결과 3개분야 8개장르에 총 310건에 10억8천6백만원을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사업별로는 **문예진흥기금**사업 240건에 6억3천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23건에 2억4천6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47건에 2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월11일까지 총 436건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지난 1월18일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사업별 지원규모와 장르별 배분계획을 결정한바 있으며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금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을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모두가 고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소외지역 및 시민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며 대전문화예술의 일류화와 대중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심사는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 작품제작,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심사 함으로써 가능한 동일단체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노력했으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예술단체가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작품성 위주로 선정 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원도심지역, 등산로 주변 등 문화소외지역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대중성 위주로 지원되도록 배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 사업선정에 있어 작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240건중 44건(18.3%)이 새로운 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예년(07년 253건중 31건/12.2%)에 비해 신규단체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원사업에 대해 엄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밖에 없어 심사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지원사업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2월5일 금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과정과 지원사업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끝)